

한국문화체험 하세요!

관광공사·지자체, 중국 유학생 학부모 초청 행사 개최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는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200여명의 학부모 400여명을 초청한다. 총 600여명의 이들 유학생 및 학부모는 오는 6월28일부터 7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2박 3일 동안 열리는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중국 학부모 초청행사가 이처럼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 규모는 매우 크다. 2010년 기준 전체 유학생의 68.9%, 5만7천7백 83명이 중국 유학생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길수록 의외로 반한감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가자들은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수도권으로 나뉘어 각 지역별 관광에 나서게 된다.

지역별 코스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관광객 대상 코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지역의 문화와 한국의 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남권 코스에서는 템플스테이 및 하회마을에서 별신굿 공연 등을 관람하고 병산서원을 방문해 한국의 유가사상을 체험하게 된다. 호남권 코스에서는 염전체험과 국악기 체험, 남도음식만들기 등을 해보고, 선운사도 방문해 기존 관광코스에서는 맛보기 힘든 한국 전통의 깊이를 느껴볼 예정이다. 강

원권에서는 관노가면극 관람을 필두로 양떼목장과 한류의 꽃인 남이섬을 방문하게 되고 수도권에서는 화문석 만들기과 뷰티 체험 등을 하게 된다.

행사를 처음 기획한 공사 중국팀 박정하팀장은 “유학생과 그들 부모에게 한국을 같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매력적”이라며 “처음이니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 8개 지자체 및 기관이 이번 행사 취지에 동참해 각 지역 일정을 주관하고 있다. 아시

아나 항공도 양복항공로 할인 제공 등의 방식으로 본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추진에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크게 일조했다.

중국인의 한국 방문에 비자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나 법무부 등은 본 행사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다는 판단 하에 본 행사에 참가하는 학부모 대상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적지 않은 기업이 행사를 후원하였다.

신세계그룹과 한국인삼공사 등이 본 행사의 협찬에 나섰으며,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여러 기업이 관심을 표명해 와 최근 기업들의 중국과 중국 유학생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확인케 했다.

내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사이” 회장이자 “와코리아 클럽” 회장 탄평루씨는 우리사이의 활동역역이 한국홍보활동을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싱가포르 많은 대학생이 서로 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진 한국 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한국관광사포터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 지역 한국관광사포터즈 와코리아클럽(Wah! Korea Club)은 2010년 9월 런칭해 현재 약 3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 소파 배드로 이루어진 레지던스 룸은 2개의 의자를 포함한 다이닝 테이블,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취사가 가능한 조리도구들을 갖추고 있어 장기 투숙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족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특히 래밍턴 호텔은 모든 룸에서 무료 WI-FI가 제공, 호텔에서 머무르는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필리핀 최초의 6성급 호텔 맥심호텔과 5성급의 메리어트 호텔에 이어 세 번째로 오픈하게 될 래밍턴 호텔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숙박함과 동시에 리조트월드 마닐라 내 레스토랑과 쇼핑몰, 각종 부대시설 및 엔터테인먼트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오는 9월 프리 오픈을 시작으로 10월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될 래밍턴 호텔은 리조트월드 마닐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문의: 리조트월드 마닐라: 02-733-9033, www.rwmanila.com/www.rwm.co.kr)

올 여름휴가는 저탄소 녹색여행으로!

관광공사, ‘지구를 살리는 녹색여행’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코레일, 녹색연합, 착한여행과 공동으로 주말을 제외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역 (6.13~6.24)과 용산 역 (6.27~7.8)에서 저탄소 녹색관광을 실천하기 위한 ‘지구를 살리는 녹색여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구환경을 생각하여 탄소절감을 추구하고,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배려하는 행복한 여행인 녹색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캠페인을 통해 인식시킴으로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여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 생태관광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등 녹색관광 콘텐츠 정보 제공, 사진 전시회, 도보여행을 위한 ‘두발로’스마트폰 프로그램 소개, 탄소절감에 참여하는 녹색나루 꾸미기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지구를 살리는 녹색 여행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녹색관광 종합 홈페이지(www.녹색관광.kr)’에서 6월 13일부터 볼 수 있다.

코리아패스, 하나은행서도 판매

이용자 증가에 따른 판매처 확대로 관광객 편의 증진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의 환전 불편 해소와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작년 말 출시한 코리아패스(Korea Pass: 관광통합이용권) 이용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울, 부산, 제주지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도 코리아패스 카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과 명동 영업부 등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국 35개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코리아패스 구매 외국인에게는 50%의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그간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등으로 판매처가 한정되었으나, 하나은행까지 판매처가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코리아패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국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에는 세븐일레븐, 공항철도 고객안내센터 등 기존의 판매처 외에 하나은행의 판매 오픈으로 총 10개로 판매처가 확대되어 외국인관광객들의 구매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는 향후 코리아패스가 여행관련 가장 편리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 중, 일 3국 통용을 위한 중국 및 일본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내·외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에 소재한 우수 관광사업체와의 제휴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코리아패스는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N타워, 난타 공연, 롯데면세점 등 할인가맹점 7,000여개를 확보해 하나의 카드로 관광, 쇼핑, 숙박 등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할인 및 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선불카드이다.

아시아나, 현혈로 사랑 나눔 실천한다

약 300여명의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이 참여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현혈행

사를 펼쳤다. 금번 현혈 행사는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아시아나타운을 비

롯해 김포공항에서 시행되며, 약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현혈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임직원들이 현혈증을 기증하면 백혈병 환자 및 소아암 아동 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중인 아시아나의 현혈행사는 6월 14일 ‘세계 현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아름다운 기업 7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현혈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전 계열사에서 현혈운동을 펼친다.

『창덕궁 달빛 기행』특별 홍보 행사 개최

한국관광공사, 고품격 문화관광상품



창덕궁 달빛기행 참가자 달빛을 바라보며 기념사진 촬영(앞줄 왼쪽 4번째 이배웅 국가브랜드 위원장, 뒷줄 왼쪽에서 4번째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 5번째 최광식 문화재청장, 6번째 한국관광공사 이창 사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는 문화재청(청장 최광식)과 공동으로 지난 14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창덕궁 경내에서 이배웅 국가브랜드 위원장,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한국명 심은경) 주한 미국대사를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외교사절단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창덕궁 달빛기행」 특별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지난해 상

반기에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국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고 개발했다. 2010년 9월 이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덕궁 야간관람 프로그램으로, 운영 첫 해인 2010년에 총 11회에 걸쳐 1,138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와 문

화재청이 주한외교사절단과 주요 외국관광객 관계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창덕궁 달빛기행」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특히 이임을 앞둔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 등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이배웅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직접 해설을 맡아 주목을 끌었다.

정다운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

한국공항공사, 서울시와 다문화모국방문 지원 협약 체결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서울특별시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지원을 위한 협약」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식을 계기로 올해는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약 78가정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리조트월드 마닐라, 래밍턴 호텔 오는 10월 오픈!



아시아의 라스베가스'를 꿈꾸는 리조트월드 마닐라(www.rwmanila.com/www.rwm.co.kr)에서는 세 번째 대형 호텔, 래밍턴 호텔이 오는 10월 그랜드 오픈한다.

총 712개의 객실로 이루어진 래밍턴 호텔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버젓 호텔로 623개의 스탠다드룸과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 스타일의 89개의 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퀸 사이즈 배드를 비롯,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스탠다드룸은 모던한 쉐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한층 편안한 안락함을 제공한다. 이외에 1개의 퀸 사이즈 침대와 1개

“어메이징 런치 먹고 콕으로 go!” 이벤트 진행

콕 관광청, T.G.I.FRIDAY

콕 관광청에서 T.G.I.FRIDAY와 함께 어메이징 런치 스크랩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참여 인원이 늘어 날수록 경품도 올라가는 “Follow Me”와 “Find Your Taste” 이벤트 스크랩으로 T.G.I.FRIDAY 홈페이지(www.tgi-f.co.kr)에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첫 번째 “Follow Me” 이벤트는 김사랑의 솔즈베리 잡 스타일과 이태임의 크리스티드 치킨 스타일 중 선호하는 메뉴에 투표를 하며, 참여자가 7,000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는 콕 왕복 여행 상품권(1인2매, 유류 할증료 및 VAT 별도 부담) 증정한다.

또한, “Find Your Taste” 이벤트는 T.G.I.FRIDAY의 어메이징 런치 메뉴를 3,000명 이상의 SNS 소유자가 소문을 내면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도 콕 왕복 여행 상품권(1인2매, 유류 할증료 및 VAT별도 부담) 증정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5일 T.G.I.FRIDAY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되며, 당첨 경품은 응모 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된다.